

문화관광 인사이트

Culture & Tourism INSIGHT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44호 (2020. 6. 5)

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
TEL | 02)2669-6987

집필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미래전략TF¹⁾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과제

1. 코로나19 이전 보다 더 나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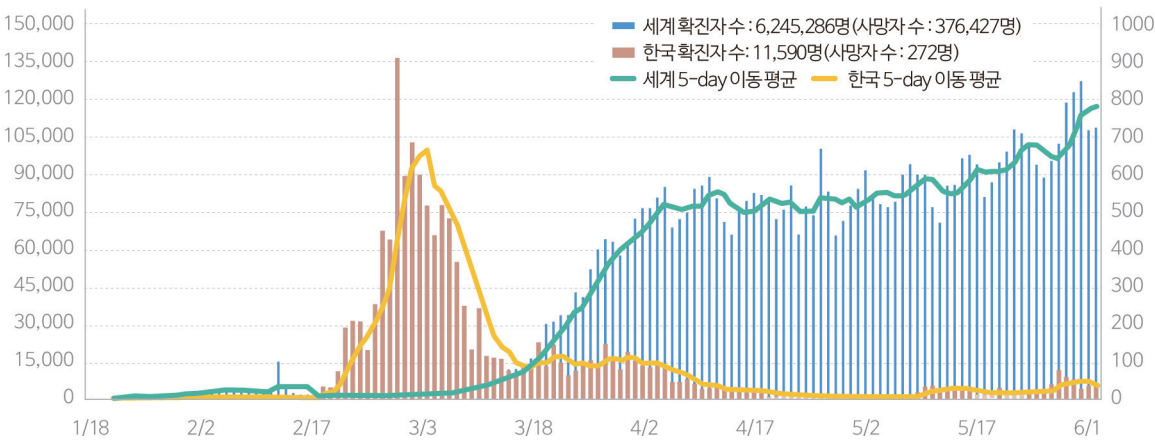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2020년 6월 2일 기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25만 명,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었다. 아시아, 유럽, 미국을 거쳐 최근에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터키, 중남미 국가에서 하루 10만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월 초순 정점을 지났다. 소위 선진국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고비를 겪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코로나를 예고한다.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되지 않는 것 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과 삶, 일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선진국보다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은 맞지만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한다. 코로나19의 대

1) 김성진(정책정보센터), 이상열(기획조정실), 김동현(관광정책연구실), 최경은(관광정책연구실), 연수현(예술정책연구실), 이상규(문화산업연구센터), 송철재(정책정보센터), 김혜인(기획조정실)

그림 1 | 세계 및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2020년 6월 2일 기준)



출처: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유행으로 세계가 동시에 멈춰 섰고 우리 모두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론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대전환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모색과 공론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 전망

전 세계의 많은 석학, 언론, 단체,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를 국제관계, 기술, 경제, 노동,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국제관계의 변화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심화, G2의 쇠퇴와 중견국의 역할 부상,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국가주의의 부상, 세계화의 퇴조, 서구 우위의 선진국 신화 붕괴 및 선도국 부상 등이 우세하게 전망되고 있다. 기술 변화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비대면, 온라인 기술의 급속한 적용과 확산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또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온라인 기술의 변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압축 발전한다는 것이다.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역성장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월, IMF는 -3.0%, 블룸버그는 -8.1%, 무디스는 -4.0%로 2020년 세계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고 리쇼어링 확대도 점쳐진다. 디지털 기술 변화와 맞물려 스마트 팩토리, 온라인 유통과 소비 등 디지털 경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ILO는 지난 4월 7일, 코로나19가 세계 노동인구의 약 81%(27억 명)에 해고, 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 위험이 먼저 나타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용직 근로자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가 5월 28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이러한 전망이 실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노동 절감적인 생산과 유통이 확산되고 기술 실업과 플랫폼 노동의 증가도 전망

표 1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문화 부문 영향

구분	주요 내용
국제	• 초강대국, 유럽연합, 국제기구의 3중 실패 경험 •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국가주의 부상, 각국도생(nation first) • 중견국의 역할 부상, 중견국 시대; G1(미국) → G2(미국, 중국) → G0(중견국) • 세계화 퇴조화되, 국제 연대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공존하는 딜레마 지속 • 서구 우위의 선진국 신화 붕괴, 선도국(leading country) 부상 • 지구환경의 소중함 재발견; 기후변화 대응 요구 확대
기술	• 5세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비대면, 온라인 기술의 급속한 적용과 확장; 온라인 쇼핑·로봇 배송, 디지털·비접촉식 결제, 원격 업무, 원격 학습, 원격 진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경제	• 복합 경제위기 지속 우려; 실물위축 → 자금경색 → 기업부도 → 금융위기 → 실물위기 •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경제성장 역성장 전망; 세계경제 -3.0%(IMF) ~ -8.1%(블룸버그), 한국경제 -0.1%(블룸버그) ~ -1.2%(IMF) • 중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과 리쇼어링(기업유턴) 확대 • 디지털 경제 가속화; 온라인 소비, 스마트워크, SMART FACTORY
노동	• ILO, 노동인구 81% 악영향 추정; 1/4분기 4.5%(1.3억명), 2/4분기 10.5% 일자리 감소(3.05억명) 예측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AI 발전, 로봇 등장으로 일자리 대체와 플랫폼 노동 증가, GIG 노동의 가속화 • 단기 임시직·일용직 일자리 위험, 장기화시 상용직 근로자 해고 확대 우려
사회 문화	• 결혼과 출산에 부정 영향, 홈 루덴스 문화 확산, 에코 라이프 부상 • 사회적 대립과 갈등 심화; 외국인 혐오, 사회불안, 세대 및 계층 갈등 등 • 비대면 사회의 소외와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불이익 • 사회적 피로 누적과 코로나 블루; 코로나 사태로 국민 10명 중 2명이 주변 관심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과 우울 경험(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조사)

문화예술·관광·콘텐츠 영향

창작·노동	산업·유통	소비·향유
• 고용안정망과 일자리 위험 - 프리랜서 예술인 창작 위축 - 외주 중심 콘텐츠 제작 위축 -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곤란 • 수요층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 공정, 책임 가치 중요, 문화를 통한 소통·통합 요구 - 1인 크리에이터 등 콘텐츠 제작 시장 확대	• 가치사슬 재편, 생태계 재구성 - 티켓 판매 → 온라인 구독 - 소수 플랫폼 중심 콘텐츠 제작, 유통 가치사슬 재조직 - OTA 중심 관광 생태계 심화 • 유통 플랫폼 O2O 강화 - 예술(온라인 관람), 콘텐츠(OTT), 관광(OTA)	• 비대면·온라인 향유 일반화 - 향유 장소 변화(집단시설 → 집) -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 발생 • 안전과 힐링 수요 확대 - 재택근무 확산, 여가시간 증대 - 안전하고 자연친화 여행 트렌드 확산

된다. 사회문화적 변화로는 출산을 저하, 홈 루텐스 문화의 확산, 불안과 혐오 등 사회적 갈등 심화, 디지털 격차 심화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 등이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부문의 영향도 불가피하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마지막에야 회복되는 분야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창작자와 종사자의 고용안전망과 일자리 위협은 심화되고, 관광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과 생태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문화예술과 여가, 여행의 소비와 향유도 공간과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3. 코로나19 이후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 전망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재난극복의 역설’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여정은 세계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대응과 의료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외에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동체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의 시기마다 공동체의 힘으로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 이후에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재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 발생하게 되면 공동체의 연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발휘된 공동체 연대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비대면의 명암(明暗)’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교육, 문화, 회의 등 비대면의 사회와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대면의 기술이 중장년층에게도 확산되면서 개인 생활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의 기술, 사회, 경제는 밝은 면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 경제로의 빠른 전환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힘든 현실도 마주하게 되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디지털 격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 격차에 따라 불편함의 문제가 불이익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우려이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겠지만 그래서 더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회복탄력성의 위기’이다. 현장성과 대면 접촉 중심의 공연과 전시, 영화산업, 관광산업 분야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되었다. 2020년 4월의 영화 관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9% 감소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인은 98.2%, 외국을 방문한 국민은 98.6%까지 감소했다. 투어리즘 제로(Tourism Zero) 시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설령 오래 지속된다 해도, 새로운 위기상황이 재발한다 해도 공연과 예술, 스포츠와 여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의, 대규모 관중이 한 곳에 모여 감상하거나 단체로 여행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공연 예술, 영화산업, 관광산업을 조기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오는 위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에서 위기 대응력과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네 번째는 ‘고용 없는 회복’이다. 코로나19로

표 2 | 코로나19 이후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주요 이슈〉	〈대응 과제〉
재난 극복의 역설 •코로나19 극복이 글로벌 스탠더드화 - 정부대응, 의료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시민사회 참여, 공동체 → 감동스토리 - 해외 평가, 내 생애 가장 부러운 곡선 - #힘내라대구경북, #덕분에챌린지 •재난의 시기마다 공동체 연대로 극복, 재난 후 분열과 갈등, 양극화 심화	① '우리 재발견' 통한 공동체 문화 함양 •공동체 문화는 역사의 격랑과 재난을 극복해온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기초 •사회적 관계, 공동체 통합성을 높여 신뢰와 연대의 행복한 공동체로 전환
비대면의 명암(明暗) •온라인 쇼핑·교육·문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사회 및 경제 전환 - 젊은 층 전유물이 중장년층에게도 확산, 개인 생활의 디지털화 •대중 밀집의 체육관, 호텔, 극장, 박물관 등 서비스산업 변화 불가피 •디지털 격차의 확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나 그래서 더 불편한 사람들은 증가	② 국민 힐링/치유의 시간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분노,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국민 증가 •예술과 여행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심리방역, 감성 치유 추진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위기 •오프라인 경험 소비와 온라인 구독 소비의 급격한 변화, 영화산업 등 직접 피해 •Tourism Zero(인·아웃 바운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 국제여행 자유화 장기간 소요, V자 반등보다 U자 회복, L자 침체 우려 •전염병 등 위기 발생 빈도 확대, 위험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	③ 디지털 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는 불편함이 아닌 불이익 문제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의 문화 격차 해소,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고용 없는 회복 •2차 대전 이후 최악 고용 위기(ILO) •최저속 인구증가, 초고속 고령화 + 코로나19 장기화 → 초저성장과 고실업 •밀레니얼, Z세대의 실업 우려, 코로나 영향을 평생 안고 사는 코로나세대 •폐업과 실업으로 민생과 국민행복 위기	④ 위기 대응력이 강한 건강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생태계 구축 •위험대응 일상화,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재구축 •콘텐츠 성패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보다 철학과 감성, 스토리텔링이 결정, 창작자, 종사자의 고용안전망 구축
거꾸로 가는 세계화 •국가주의 부상, 글로벌 거너년스 후퇴,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자국 중심 재편, 사람·자본의 국제이동 둔화 •미중 외교, 무역 마찰로 양자택일, EU 결속력 저하 및 유로존 갈등 확대 •미국, 유럽이 대표하는 서구 선진국 퇴락	⑤ 코로나19 이후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발전에 비해 낮은 국민의 삶의 질,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 오명 극복 •소득 등 객관적 지표는 개선, 공동체 등 주관적 평가는 부정적인 불만사회 지속 •국민들의 행복 척도가 사회적 요구에서 개인적 선호로 변화
	⑥ 한류 활용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탈글로벌 보호무역 시대, 세계를 무대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K방역 → K문화상품 → K수출상품 →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의 선순환
	⑦ 글로벌 리더십 및 소프트파워 강화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집중, 방역 모범 국가 평가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세계 평화와 공익 증진

전례 없는 경제 위축은 고용 충격을 통해 민생과 국민행복의 위기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대면 서비스업의 종사자들, 비정규직과 청년층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더 강한 일자리 충격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거대한 일자리 충격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고용 없는 회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과 사용자들은 코로나19에서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가급적이면 무인화, 자동화, 플랫폼화, 디지털화를 추구할 것이고,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거꾸로 가는 세계화’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패권국 G2 등 3중 실패를 목도했다. 세계화의 침병이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도 알게 됐다. 효율성을 가치로 어렵게 구축된 글로벌 공급사슬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지역과 자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자본의 국제 이동도 둔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닫힌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한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부 갈등과 경제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며 다양한 경로의 탐색이 필요하다.

4.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응 과제

코로나19 이후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에 따른 일곱 가지 대응 과제는 <표 3>과 같다. 여기 제시된 과제는 완결이 아닌 제언에 가깝다.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또 다른 과제’의 탐색도 필요하다.

첫째, ‘우리 재발견’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함양이 필요하다. 공동체 문화는 역사의 격랑과 재난을 극복하고 사회를 유지해 온 기초이다. 코로나19의 국면에서 발휘된 공동체의 성취, 세계인의 한국 인식 변화에 대하여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 확대, 미디어환경 조성, 글로벌 문화교류 등 문화다양성을 증진하여 젠더갈등, 세대갈등, 외국인혐오 등 재난 후 사회 분열 심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 힐링/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분노,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청소와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의료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청소업체 종사자 등 현장에서 땀 흘린 많은 시민들의 노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배송과 배달, 돌봄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키워커(key worker)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국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 치유하는 산림, 예술,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개되면 디지털 격차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불이익의 문제로 확대된다.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

2) 여기 제시된 과제는 완결이 아닌 제언에 불과하다. 실행력을 갖기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과제’의 탐색도 필요하다.

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리적, 경제적 이유로 오프라인의 공연과 전시 관람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과 서비스 확충도 필요하다.

넷째, 위기 대응력이 강한 건강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생태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드러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산업의 약한 고리부터 우선 살펴야 하겠고, 열악한 창작 및 노동 환경이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생산성과 위기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규제완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에 비해 낮은 국민의 삶의 질,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 중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도, 지역사회 소속감, 여가생활 만족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모든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 부서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한류를 활용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탈글로벌의 보호무역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K방역 → K문화상품 → K수출상품’의 코리아 프리미엄 선순환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한류 활용 글로벌 마케팅과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고, 한류협력위원회와 한류추진단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십 및 소프트파워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고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가 위기대응 모델로 정립하고 아시아 및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사업(OD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세계 평화와 공익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3 | 과제별 세부내용

① '우리재발견' 통한 공동체 문화 함양	•코로나19의 국면에서 발휘한 공동체의 성취, 세계인의 한국 인식 변화에 대하여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헬조선'이라는 자학, 서구문화 콤플렉스를 극복 •시민교육 확대, 미디어환경 조성, 글로벌 문화교류 등 문화다양성 증진으로 젠더갈등, 세대갈등, 장애인차별, 가짜뉴스, 외국인혐오 등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공존의 문화 창조
② 국민 힐링/치유의 시간 추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배경으로 힐링/치유의 영상 제작, 온라인 공개(사례; Turkish Therapy)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힐링/치유의 문화 프로그램과 특별 여행주간 추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청소와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의료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청소업체 종사자 등 현장에서 땀 흘린 시민들, 배달과 돌봄 노동 등 키워커(key worker) 대상 힐링/치유의 시간 제공
③ 디지털 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	•디지털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PC/태블릿 지원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지리·경제적 이유로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 관람의 기회가 적은 계층 대상 온라인 영상 및 서비스 확충 •온라인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적용기준 완화
④ 위기 대응력이 강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복지권, 인권 보호를 통해 열악한 창작 및 노동 환경이 콘텐츠 경쟁력 감소를 사전 예방 •관광산업 고용유지 지원 강화, 생산성과 위기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규제완화, 공정거래환경 조성, 새로운 공제조합 추진 •티켓 판매 기반 콘텐츠의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모태펀드 추가 출자, 콘텐츠공제조합 출자확대 등 금융세계 지원
⑤ 코로나19 이후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 중 정책 또는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도, 지역사회 소속감, 대학졸업자 취업률, 여가생활만족도 등 개선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국민 삶의 질 개선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 부서 설치
⑥ 한류 활용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중소·중견 기업의 한류 활용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무역장벽과 보호무역에 효과적 대처위해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확보 •한류협력위원회와 한류추진단 역할과 책임 강화,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⑦ 글로벌 리더십 및 소프트파워 강화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정부 시스템, 의료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시민사회 참여, 공동체 문화를 종합하여 국가 위기대응 모델로 정립 (K위기대응모델) •아시아 및 개도국 대상 국제협력사업(ODA) 추진,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 ODA 확대